

무공저

오늘때 보지못한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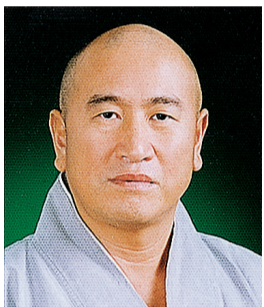
단 3줄로 되어 있는 고은 시인의 시 '그 꽃'이다.

삶의 깨우침이란 '한 해'라는 산에 오를 때가 아니라 한 해의 마무리를 내려올 때 비로소 얻는 것이 아닐까. '한 해'라는 산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오르는 것만을 생각한 다. 저기 떠나면 정상 위에는 아주 중요한 목표 몇 가지만이 빛나고 있으니 그것을 향해 직진하지 않을 수 없다. 올라가야 하는 마음이 절실할 때에는 급하기도 하고, 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먼 곳의 환한 빛을 따라갈 때는 발 밑의 작은 것들이 눈에 들

짐과 대규모 감원 소식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소식까지..... 올해도 힘겨운 한 해였다. 많은 상실과 아픔을 안은 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다.

전국의 대학 교수 935명이 올 한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한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코로나19 시국 속 위태로운 경제현실에 민생은 외면한채 비상식적인 정치관의 진흙탕 싸움을 보며,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한 한 해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게 마련이며, 그 허물을 고쳐나가 허물을 없게 하는 일이 도리라는 뜻도 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니 사과할 이유도, 고칠 필요



중 상
(청계사 회주)

허물 알고도 고치지 않는것이 '잘못' '감사하는 마음', 사회적 온기 높여

어오지 않는 법이다. 정상의 별을 찢든, 따지 못했던 간에 시간이 흐르면 누구에게나 '한 해'의 내리막 길은 찾아온다. 내려가는 것은 지는 것도, 잃는 것도 아니다. 단지 새로운 국면일 뿐이다. 게다가 내려갈 때는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꽃'을 발견할 수도 있다. 꽃을 발견한다는 것은 사람이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허리를 굽힐 줄도 알고, 작고 고운 것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 때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귀한 무엇을 찾아내는 그 때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

올 한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다. 흔히 이맘때면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운 해에는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시기이다.

코로나19 불안으로 시작한 2022년, 고물가와 치솟는 이자율, 경기침체 조

도 없는 것이되어 마침내 그 자체로 '잘못'이 되고 만다.

사람은 잘못했으면 깨끗이 사과하고 고치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는 2022년 '한 해'라는 산을 내려오고 있다. 오를 때 보지 못했던 '감사(感謝)'를 보자. '인생은 모든 사람이 받은 큰 선물'이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되자. '감사'는 못 가진 걸 보던 눈을 돌려 가진 것을 보는 것, 내 안에 집중돼 있던 관심을 돌려 이웃을 보는 행위이다.

시선을 돌려보면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뜻하지 않게 시련을 겪는 친지, 생활고에 힘겨운 이웃,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인 등..... 출고 스산한 연말,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쓰는 그 슬기로운 일에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온기를 높였으면 한다.

한마음 된 봉사자들의 김장 울력

정성껏 마련한 김장으로 건강과 행복 찾기 기원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주지 성행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 자비나눔 봉사단, 의왕지역 봉사단 300여명은 경내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배추 5000여 포기(4000만원 상당) 김장을 담가 의왕 및 성남지역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사흘간 배추와 무,

갓 뽑기를 시작으로 배추 속 넣어 포장에 이르기까지 봉사자들은 한마음이 되어 김장 울력에 임했다.

주지 성행스님은 "어려운 시국이지만 정성껏 마련한 김장을 드시고 건강과 행복을 찾기 바란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쁘다"고 전했다.

이날 성행스님은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 청계사 신도중 수고해 주신 노보살님 100여 명에게도 각각 후원금 400만원과 김장김치 100박스를 전했고, 의왕시 청계동, 내손 1,2동지역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새터민, 한부모 가정 등에 후원금 1200만원과 김치 100박스, 성남지역 독거노인에게 후원금 1200만원과 김치 300박스를 전했다. 의왕지역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300만원, 서울구치소 교정교화후원금 300만원 후원했다.



◆자비나눔 봉사에 한마음 된 청계사 신도들의 김장 담그는 모습과 의왕-청계 다문화가정, 성남지역 등에 후원금 및 김장박스 전달



(글·사진 심대덕님)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④ 월식할 때 개를 때리는 이유

밝은 해와 달을 손으로 가리고는

○.....어느 날 계곡이 깊은 산속에서 수 천년을 살아온 큰 '선바위'가 신선(神仙)에게 물었다. "신선께서는 인간들을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요?" 신선(神仙)이 미소지으며 말했다. "첫째는 어린 시절엔 어른 되기를 갈망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철부지 같다. 둘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모두 병원과 약방에 바치고 돈을 다 잃어 버리는 것이다. 셋째는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 버리고는 결국 미래도 현재도 둘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

옛날 이수라왕이 해와 달이 밝고 깨끗한 것을 보고 손으로 그것을 가리어 버렸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월식으로 알고 아무 죄 없는 개를 제멋대로 때렸다.

《해설》 범부도 그와 같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써 이유 없이 제 몸을 괴롭힌다. 그리하여 가시밭 위에 놓기도 하고 다섯 가지 뜨거운 것으로 몸을 지지도 한다. 그것은 마치 월식할 때 죄없는 개를 때리는 것과 같다.

은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짧게 살다가 죽는 것을 모르고 사니까 잠으로 어리석다는 것이 답이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에라스무스의 유명한 <우신 예찬>(愚神禮讚-어리석은 신에 대한 예찬)은 가톨릭교회에 대한 풍자이다. 1509년에 알프스를 넘으면서 그는 이 책에 착상했다. 그리고 <유투피아>의 저자인 토머스 모어의 집에서 열흘 동안 머물면서 '장기를 두는 기본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치우(痴愚-어리석고 미련함)로 충만하여 있는가를 낱말로 들었다. 바보의 신 '우신'은 '부유의 신'을 아버지로 '청중의 신'을 어머니로 그리고 '도취'와 '무지'의 두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 바보의 신은 친구들을 여러 명 가지고 있다. 추종의 신, 계

름의 신, 향락의 신, 무분별의 신, 방탕의 신, 미식과 수면의 신 등. 에라스무스는 이들 어리석은 신들을 통하여, 당시 학자들이 비롯한 인간 세계 일체가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쓰고 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무지하고 우둔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지혜로 무장하라.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물에 빠져도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주변을 돌아보라. 정녕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일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온다.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마구 늘어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빠르게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하셨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 *법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인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김정중 50부
- ♣ 수원구치소 김형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정중순 50부, 김대희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준형 50부, 김윤호 50부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성도재일 철야 정진기도

- 입 재 : 불기2566(2022)년 12월 23일 (음력12월 1일) 금요일 10시 30분
- 입 재 : 불기2566(2022)년 12월 30일 (음력12월 8일) 금요일 10시 30분
- 동참금 : 3만원

정초신중기도

- 입 재 : 불기 2667(2023)년 1월 24일 (음력 1월 3일) 화요일
- 회 향 : 불기 2567(2023)년 1월 30일 (음력 1월 9일) 월요일
- 기도비 : 5만원
- 새해소망등 : 1만원(1인1등) 2023년 1월 1일부터 한 달간 밝혀 드립니다.

정월방생 법회

- 입 재 : 불기 2567(2023)년1월 31일 (음력1월 10일) 화요일 8시 출발
- 장 소 : 황간 반야사
- 동참금 : 6만원(공양미 준비해 오세요)
- 출발장소 : 인덕원역 3번 출구 직진 진참치 앞 차량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입춘 기도(삼재 소멸)

- 일 시 : 불기 2567(2023)년 2월 4일 (음력 1월 14일) 토요일
- 삼재때 : 원승이, 쥐, 용피 (신, 자, 진) 놀삼재
- 입춘시 : 오전 11시 43분
- 기도비 : 5만원(삼재소멸, 재수, 안전운행, 입춘대길 다라니 드립니다)
- 준비물 : 새 내의 한 벌
- 차량운행 :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운행

설 합동 차례

- 입 재 : 2023년 1월 22일 (음력 1월 1일) 일요일
- 시 간 : 새벽예불 후 5시 30분
- 동참금 : 15만원

절요

절요는 강원 사십과와 교과목으로 중요한 불교 입문서이다. 원제는『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이다. 고려 때 지눌스님이 당나라 종일 스님의 <법집별행록>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를 써 넣어 편집했다. 지눌스님이 입적하기 9개월 전쯤 마지막으로 펴낸 책으로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에 이르는 참선수행의 올바른 과정을 담고 있다. 후학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자리 공적영지를 단숨에 알고, 그 길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나아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돈오점수를 강조하며 정혜쌍수를 역설하였다. <편집자주>

2. 諸宗의 大意總判(3)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密師의 뜻은 이 두宗旨을 비방하는 것인지 칭찬하는 것인지? 그러나 단지 후학들의 말에 대한 집착을 부수고 여래의 의견을 원만히 깨닫게 하였을 뿐이고 二宗에는 비방하거나 찬성하는 마음이 없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禪源諸詮集序에 三宗을 나누어 비판하였는데 그를 간략히 말하면 一은 息妄修心宗(北宗)이고 二는 現絕無寄宗(牛頭)이니「법부와 성인의 법이 모두 꿈이나 허깨비와 같다고 하면 참선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 말을 가장 진실한 것으로 알고 이宗旨은 다만 이 말로서 법을 삼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지 못한다.」하였는데 이 말로서 미루어 보면 密師가 어찌 우두의 도가 원만히

이러므로 마땅히 알라 密師가 馬祖의 설법이 바로 심성을 나타내어서 二利行門에 있어 깊이 좋은 방편을 쓴 것을 아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돈오문에 가깝기는 하나 아직 적실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학자들이 그 말만 인정하여 인연을 따르는 작용에만 걸리고 고요하게 아는 것은 깨닫지 못할까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말법시대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먼저 하택의 말한 바 言教로서 자기 마음의 性相體用을 결핵, 空寂에도 떨어지지 말고 隨緣에도 걸리지 말고 진정한 지혜를 발한 연후에 홍주 우두 二종의 종지를 차례로 보면 틀리지 않고 꼭 들어맞을 것이다. 어

말하고 동작하고 탐내고 성내고 사랑하고 참는 것 등이

너의 불성이니 단지 때와 곳을 따라 업을 그치고 정신을 길러 聖胎를 더욱 자라나게 하면 자연히 신통묘용이 나타나게 된다.

성취된 줄을 알지 못할까만은 「반 밖에 알지 못했다.」한 것은 다만 비교 고요한 이치를 최상이라 인정하고 또 자성의 근본 작용인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을 알게 하여서 비로소 원만히 아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제 三은 直顯心性宗이다. 「일체법이 혹 있고 혹 공한 것이 모두 오직 眞性이다.」하였는데 그 가운데 지시한 이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지금 말하고 동작하고 탐내고 성내고 사랑하고 참는 것 등이 곧 너의 불성이니 단지 때와 곳을 따라 업을 그치고 정신을 길러 聖胎를 더욱 자라나게 하면 자연히 신통묘용이 나타나게 된다.」(홍주)하니 이것이 곧 참되게 깨닫고 참되게 닦고 참되게 증하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법이 꿈과 같다고 여러 성인들이 다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망령된 생각이 본래 고요하고 멋진 경계가 본래 공이다. 비교 고요한 마음이 신령스럽게 알아 어둡지 아니하니 이것이 곧 참 성품이다.」(하택)하였다.

그러나 이 두 분은 相을 모아 性으로 돌렸기 때문에 宗으로서의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상 세 宗은 여러 가지로 같지 않으나 다 이는 二利行門에 각기 그 방편을 따른 것이라 또한 잘못된 것이 없지만 다만 宗을 삼는 이치만은 둘로 나눈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였다. (글이 너무 번거로우려 자세히 적지 않는다.) <불국사 승가대학학장>

찌 가히 망령스리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내겠는가. 그러므로 이르되, 「세 접이 각각 다르면 伊字를 이루지 못하고 三宗이 만약 어거면 어떻게 부처를 지을 것인가?」하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앞에서 말하기를「홍주는 漸修門엔 완전히 어긋난다」하고 또 이르되「참된 수행이요 참된 지혜이다」하니 말이 서로 어긋난 것 같으나 그러나 깨닫고 아는 이치가 眞眞自然하여 가히 닦고 다스릴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어긋난다 하였고 또 곳을 따라 정신을 길러 신통묘용의 행을 나타내므로 이르되 「참된 수행이다」 한 것이니 모두 뜻이 있는 까닭에 서로 어긋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모름지기 겨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의 곱고 추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어찌 남의 글에 걸리어 評論으로서 날을 보내며 제 마음을 변명하지 않고 바른 觀을 닦지 않겠는가? 『옛 사람이 이르되, 「불법이 귀한 것은 行持에 있고 항상 업으로 판단하는 것을 취하지 않는다.」 하니 간절히 모름지기 뜻에 색이고 간절히 모름지기 뜻에 색일 말이다.』 <불국사 승가대학학장>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법화경

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 줄거리 <상>

이 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학인(學人)과 무학인(無學人) 2천명에게 수기를 하셔서 '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이라고 이름지어졌다. 여기에 학인과 무학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뜻과는 전연 그 뜻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학인은 학식이 있는 사람, 무학인은 학식이 없는 사람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불경에서는 학인은 공부 부족하여 앞으로 더 배워야 할 사람이고, 무학인은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의 의미이다.

이 품에서는 부처님께서 10대제자 중 다문 제일로 알려진 아난, 그리고 10대제자 중 밀행 제일의 라후라에게 수기하고 있으며, 이어서 학·무학인 2천명 모두에게 수기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아난과 라후라는 2천 명의 앞으로 더 배워야 할 사람(학인 學人)들과 이미 배움을 마치고 이제는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무학인 無學人) 함께 수기 받기를 원했다.

먼저 아난과 라후라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싶은 마음을 사된다. 아난은 부처님의 속가 사촌 동생으로

25년 동안 부처님 시종을 한 사람이고, 라후라는 싯달타 태자와 야소다라부인 사이에 태어난 부처님의 속가 아들이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62억 부처님을 공양한 후에 산해해자제통왕여래(山海慧自在通王如來)라는 이름으로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주신다.

수기는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의미와 앞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두가지 의미 동시에 지녀

라후라에게도 10세기의 미진수 같은 부처님을 공양한 후에 도칠보화여래(踏七寶華如來)가 되리라고 수기를 내리신다. 부처님은 또 2천 명의 학인 그리고 무학인에게 50세기의 미진수 같은 수의 부처님을 공양한 뒤, 다 같이 보살 여래 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사방의 나라에서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내리신다.

경주 석굴암 원형 벽면에 조각된 좌우 10대 제자는 <법화경>에서 수기를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외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출세해질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불경연구가 페이옹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받은 차례대로 서 있다. 바로 이 '수학 무학인기품'에서 아난과 라후라가 마지막으로 수기를 받았다.

아홉 번째 수기를 받은 아난다는 석굴암 뒤쪽에 서 있다.

아난이 수기를 받자 아직 수기를 받지 못한 대보살들도 있는데 성문들은 어떤 인연으로 수기를 받는가? 궁금해

수기는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의미와 앞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두가지 의미 동시에 지녀

하자 부처님께서서는 “아난은 전생에서부터 많이 듣기를 좋아하여 부처님의 법장을 수호하고 많은 보살을 교화하는 서원으로 인해 수기를 받느니라” 하셨다.

아난다는 젊고 잘생겼으며, 홀로 정면을 향해 서서 가사를 휘날리며 오른손으로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하다. 열 번째가 부처님의 아들 라후라로 밀행제일처럼 석굴암 우측 뒤쪽에서 왜소한 몸집으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눈

에 띄지 않게 설법을 듣는 모습으로 서 있다.

부처님께서서는 “내가 태자로 있을 적에 라후라가 장자가 되더니, 내가 부처를 이루었음에 법을 받고 법제자가 되었다. 라후라의 비밀스러운 행을 오직 내가 알뿐이다”고 말씀하셨다.

이 품에서 수기는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의미와 앞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2천 명의 학·무학인들은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너무나 기뻐 뿜 듯이 춤추며 부처님을 찬양하면서 '수학무학인기품'을 마무리 한다.

“지혜의 밝은 등불이신 거룩하신 세존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기의 음성 듣고/

마침 감로의 단비를 퍼붓는 것과 같네/

우리는 성불할 수 있으니/

다시는 의심과 미혹이 없네/ 이 수기 주심을 들었기 때문이니/ 우리는 이제 복덕과 이익을 얻네.”

뉴스&뉴스

연합 불교 마사회 수계법회



지난 11월 21일 오후 7시설법전에서 주지 성행스님 집전으로 총무 성건스님과 불교연합 동아리 마사회 불자인 들은 수계법회를 병행했다.

불교연합동아리 마사회는 2017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법회를 봉행, 꾸준히 기도 정진해왔다.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다. 다시 시작한 불자님들은 수계식 참여에 깊은 감명을 받는 듯 했고 주지스님의 묵탁소리에 맞춰 성건스님의 연비의식에 불자들은 뜨거운 향불이 몸의 일부에 닿았을 때 오히려 환희심과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이였다. 이날 주지스님은 “수계는 생사유희를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수계를 받음으로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고, 그동안 지은 죄를 사하고 음양으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며 격려했다. <글 황청량님>

11월 초하루 법회와 신도회장 이·취임식

11월 24일 (음력 11월 1일)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초하루 기도를 봉행했다. 합창단의 '산사의 새벽종 소리' 음성공양 후 주지

스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웃과 함께한 청계사의 모든 공덕이 신도들과 함께하길 바란다”며 제5, 6대 신도회장이 · 취임식 및 공로패, 임명장, 꽃바구니 전달식이 있었다.

5대 홍무상행회장은 이임사에서 “절과 관한 모든 행사에 앞장서서 모범을 모이며 아름다운 시절 인연을 보냈으며 신행의 중심에는 종상스님과 성행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이 함께해 무난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함께한 신도회 임원들에게 꽃바구니를 일일이 전달하며 감사를 표했다.



6대 신도회장(유지연)은 취임사에서 “삼보의 정신을 신행의 근본으로 삼아 화합하는 도량, 안락한 기도도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처님과 사부대중 앞에서 약속했다.

주지 스님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도의 길을 가며 대중들과 잘 화합하고 부처님 진리대로 이끌어가며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 서용화>

베트남 청소년 후원

지난 11월 30일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사단법인 청소년 마이트리 이사장)은 베트남을 방문해 통안성 게옌뜨엉 인민위원회 강당에서 저소득층 6000만원 상당의 장학금 및 통



학용 자전거, 학용품, 축구공 등을 전달했다. 성행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과의 인연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베트남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해 전달한 6000만원 상당의 장학금 및 물품은 (주)호아센커뮤니케이션과 중앙승가대학교총동문회, 청계사 총신도회가 후원했다. <글 주향진님>

연맹총재 초청만찬



지난 12월 7일 국회의사당 귀빈 식당에서 안규백 세계 스카우트 의원연맹 총재 취임 축하 만찬에 불교스카우트 연맹장(성행스님)의 지방·특수 연맹장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초청 만찬을 즐겼다. <글 조여래님>

좁은 길에서 사람과 마주치면

한 걸음 물러서서 그를 먼저 지나가게 하고,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대하면 조금씩 덜어 이웃과 함께 하세요. 이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입니다.

—채근담



마음밭에 무얼 심지? 중에서

창문과 거울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⑩

관음성지 ⑩

서울 경국사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조선시대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경국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각산에 자리 잡고 있다. 고려 후기 율사 정자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 조계사의 말사이다. 고려 1325년(충숙왕 12)에 창건하여 청암사라 하였고, 1330년경 무

기스님이 머물면서 천태종의 교풍을 크게 떨쳤으며, 1331년 채홍철 거사가 선방을 증축하여 선승들의 수도를 적극 후원하였다. 1352년(공민왕 1) 금강산 범기도량을 참배하고 남하한 인도 승려 지공스님이 주석한 뒤

부터 고승대덕의 수도처이자 호국안인을 위한 기도도량으로 전승되었다.

1507년(중종 2) 억불정책으로 법당을 비롯한 모든 건물이 퇴락된 채 빈 절로 남아 있다가, 1545년 왕실의 도움으로 중건되었다.

1546년 명종의 즉위로 문정왕후가 섭정하게 되자, 왕실의 시주로 건물을 전면 중수하고 낙성식과 함께 국태민안을 위한 호국대법회를 열었다. 그 때 부처님의 가호로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항상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경국사라 개칭하였다.

는, 넓적하고 평평한 코 등 양감이 결여된 본존의 얼굴 모습은 형식화가 정착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얼굴에 비해 왜소하고 위축된 신체에는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있는데, 두꺼워서 신체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옷자락은 대좌의 앞부분이 불상의 옷주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상현좌를 이루며 대좌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광배는 주형거신광으로, 윗부분에는 당초문이 화려하게 조각되었고 아래는 중첩된 산 모습이 조각되어 특이한 형태를 이루

인도 지공스님 머문 뒤 기도도량으로 전승 아미타여래설법상, 보기 드문 조선 목각탱

극락보전에는 아미타삼존불을 비롯하여 보물 제748호로 지정된 목각탱화 및 신중탱화·팔상탱화 등이 봉안되어 있다.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조선시대의 목각탱화이다. 크기는 176cm x 177cm. 너비 약 30cm 정도 되는 판목 5매를 잇대어,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모두 13구의 불·보살을 고부조로 새겼다.

본존은 커다란 광배를 배경으로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 하였고, 광배 위로 뻗은 관선 위에 모두 7구의 화불이 조각되어 있는데, 아마도 과거칠불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사각형에 가까운 넓적한 얼굴에 가늘고 긴

고 있다. 광배 주위에는 도식화된 연꽃잎을 두르고, 주위에 화염문을 배열하였는데 역시 형식화되었다.

본존의 주위에는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6구의 보살과 아난, 가섭, 증장천, 지국천 등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위쪽의 좌우에는 연화좌 위에 북방비사문천왕과 서방광목천왕이라고 쓴 표지판을 올려놓아 상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팔보살을 배열한 아미타팔대보살화의 구성을 이룬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전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리 여여광>

사찰음식 배워보기 생미역 초무침

- *재료: 물미역250g, 양파1/2, 대파1/3, 무채100g, 당근50g
- *양념장(양념장: 식초4T, 설탕2T, 소금1.5T, 통깨1T, 다진마늘 1/2T)

- *만드는 법:
- 1.미역은 씻어 데친 후 찬물에 씻어 5cm 길이로 자른 후 물기를 쥘다.
- 2.무채는 살짝 소금에 절인 후 물기를 쥘다.
- 3.양파와 당근은 채 썰다.
- 4.양념장에 미역, 무채, 양파, 당근을 넣고 무친다.

<정리 주향진성>



1400여 년 전 중국에 맹조상(孟兆祥)이라는 관리가 살았다. 어느 날 밤, 침대 위에 누워있던 그가 갑자기 왼쪽 배를 붙잡고 몸을 비틀고 뒤척거리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가족이 그의 방으로 달려와 그가 애절하게 신음하는 것을 들었으나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애만 태우고 있었다.

그때, 맹조상은 자신이 침대를 떠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자신이 걷는 것이 아니라 현연히 공중으로 날라 올라가는 것이었다.

무엇이 자신을 띄우는지 알 수 없었으나 자꾸 더 높이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어둡고 음침한 궁전에 이르렀다. 궁전의 호위병들은 마치 귀신처럼 보였다. 호위병들은 그를 잡아 궁전 안으로 끌고 갔다. 맹조상은 다른 세상의 별정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중앙에 왕관을 쓴 매우 권세 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곁에는 관관이 있었다. 왕관을 쓴 사람이 말했다.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생명사랑 이야기 100

94 또 하나의 기회

그의 목소리는 산기슭을 굴러 내리는 천둥처럼 으르렁거렸다.

“너는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사람들에 내가 본것 알려 과거 악행 상쇄

있지?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가 꼭 같은 지라 병으로 죽은 것도 알고 있지, 그렇지?”

맹조상은 두려움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너의 할아버지는 살아 있을 때 많은 동물을 죽여 그 벌을 받았다. 너는 다소의 선행을 했고 우리는 네

가 개과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살아 있는 생물을 죽이지 않는 것은 물론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늘 내가 본 것을 말해서 살생하는 죄의 대가를 알게 하고 그들 또한 너처럼 개과하도록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과거의 악행을 상쇄할 수 있다.”

맹조상은 그저 멍하니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구름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니 점차 주위에 가축이 있는 침대에 자신이 누워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라는 더 아프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곧장 동네 산에 서계신 불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부처님께 결코 살생하지 않겠다고 발원했다. 맹조상은 그 후 그에게 일어난 일을 적어 작은 책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읽도록 했다. 그의 목숨은 그때 끝나지 않고 유명한 관리가 되어 오래 살았다.

<중국 명나라 고승 연지 주광스님>



성행스님의

원각경 강설(6)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궁극적(窮極的) 경지로 불리는 『원각경(圓覺經)』은 중생 누구나 원각(圓覺)을 갖추고 있으며 그 원각(圓覺)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명(無明)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실천 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명의 보살과의 대화를 통하여 경이 이루어진 깨달음 12품으로 나누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하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여의고 진실하고 뚜렷한 부처의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원각경』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번뇌를 비우고 또 비워서 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열반의 가르침에 함께 할 것을 발원합니다. <편집자 주>

제1장 문수보살장 ③

* 1-7 깨닫는 것도 오히려 허공과 같으며

彼知覺者도 猶如虛空하며 知虛空者도 卽空花相이나 亦不可說無知覺性이나 有無를 俱遣하면 時則名爲淨覺隨順이나 何以故오 虛空性故며 常不動故며 如來藏中에 無起滅故며 無知見故며 如法界性하야 究竟圓滿하야 徧十方故니 是則名爲因地法行이나 菩薩이 因此하야 於大乘中에 發清淨心하나니 末世衆生이 依此修行하면 不墮邪見하리라

* 講說 진실된 수행은 깨달아 얻은 마음도 하깨비로 보아, 깨달음을 이룬이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어야 합니다.

마치 허공처럼 텅 비어 자취가 없지만 분명 허공이 있어 일체가 그 안에서 존재하 듯 원각도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올린 두 번째 질문인 보살과 중생이 대승법에 대하여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병에 대한 답입니다.

마음안에도 마음 밖에도 어디에도 머문바 없는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중생의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장항(長行)이며 다음은 이를 요약 정리하여 계승으로 읊은 중송(重頌)이 나옵니다.

* 1-8 문수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爾時에 世尊께서 欲重宣此義하사 而說偈言하사대 文殊야 汝當知하리라 一切諸如來 從於本因地하야 皆以智慧覺으로 了達於無明하나니 知彼如空華하면 卽能免流轉이면 又如夢中人이 醒時不可得이나 覺者 如虛空하야 平等不動轉하니 覺遍十方界하면 卽得成佛道하리라 衆幻이 滅無處하며 成道도 亦無得하니 本性이 圓滿故나리라 菩薩이 於此中에 能發菩提心하나니 末世諸衆生이 修此免邪見하리라

* 講說 깨달은 이의 마음은 허공과 같이 넓어 만물을 다 평등하게 대합니다. 꿈속의 모든 것들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저 자지가 자기가 된 것뿐입니다. 사된 도에 안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가 정도입니다. 중생에서 벗어나면 부처입니다.

일찍이 성철스님은 법문에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잡꼬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알립니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청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의
총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청계사)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녹향원과 함께하는 무지개클럽 봉사단

알뜰하고 깨끗하게 관리한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

2022년 2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초, 중
학교 고학 친구들끼리 봉사단체인 무지개
클럽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친구가 봉사한 녹향원이란 곳을 처음 방
문하였을 때 어린이 보육원 봉사과 요양원
봉사 경험은 있었지만, 지적장애우의 봉사
는 처음이라 걱정이 있었다.

직원들이 평소 알뜰하고 깨끗하게 관리
한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다.

봉사 첫날부터 코로나가 심하여 몇 달간
김밥만 전달하다가 보도블럭 깔기, 잡초제



거하기, 창고 정리하기 등의 봉사를 했으
며, 라이온스 지구 지원으로 후원도 할 수

있었다. 2022년 11월 7일 녹향원을 방문하
여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전달된 후원금은 녹향원 거주인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였
다.

요즘 코로나 이후 후원금이나 자원봉사
자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봉사가 늘었으면 하는 마
음이고 우리도 더 많은 봉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글 라이온스 354-A 7지역
무지개클럽 회장 김경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Table with columns: 구분, 금액, 지출, 전월이월금, 수입, 지출, 차기이월금. Total revenue: 6,915,000. Total expenditure: 33,420,180.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2년 11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 직접후원: 후원금: 5,000원-정계영, 김중호, 가진. 후원금: 10,000원-한유영, 김영숙, 김순임, 손선중, 변일용, 박경선, 유종경, 유수연, 유성화, 박정현, 임현재, 이인숙. 후원금: 20,000원-김상윤, 조점이. 후원금: 50,000원-심경미, 노용복.
자동납부: 후원금: 5,000원-김경숙, 김기범, 김미현, 박소용, 이환영, 한승호, 김경숙, 조형근. 후원금: 10,000원-권돈희, 권은정, 김도희, 김일남, 김자현, 김재기, 김장식, 김희면, 박정수, 서연순, 손성순, 신영선, 심영화, 원영수, 원은희, 윤미애, 이귀라, 이금선, 이수호, 이인숙, 정현식, 조수현, 조학래, 조한진, 조현상, 주은숙, 최영선, 하용권, 한경연, 홍명희, 지현스님.
지정납부: 후원금: 3,000,000원-국제라이온스클럽 354-A 지구 무지개라이온스

물품 후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휴지, 김재기-굴, 이동호-과자, 김필자-떡, 신신호-사과, 의왕보건소-방역용품
사)마에트리-컴퓨터 본체, 모니터, 빗자루, 팬이, 갈퀴, 농약통, 끈,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영양제철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육바라밀(상)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수행의
덕목인 여섯 가지 바라밀 생사의 고
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 육바라밀은 보시
(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
(精進), 선정(禪定), 반야바라밀(般若
波羅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자의 인격 완성을 위하여 원
시 불교의 사제(四諦)와 팔정도(八正
道)의 가르침으로 충분 하지만 대승
불교에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살의
수행법으로서 팔정도를 채택하지 않
고 육바라밀이라는 독자적인 수행법을 설하
였다.

그것은 팔정도가 자
기완성을 위한 항목만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이타(利他)를 위하여
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
시와 인욕과 같은 대사
회 적인 항목을 포함하
고 있는 육바라밀이 보
살의 수행법으로 알맞
다고 생각되었기 때문

견디는 것이다.
첫째 복인(伏忍)으로 비위에 거슬리
는 일이 생기면 먼저 성나는 그 마음을
조복(調伏)하여 억누르는 것이다. 그
러나 역경만 참아서는 안 되며 자기 마
음을 즐겁게 하는 순경(順境)도 참아
야 한다. 그 이유는 역경을 참지 못하
면 분노가 치밀어서 투쟁하기 쉽고 순
경을 참지 못하면 유혹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유순인(柔順忍)으로 사람이
참가를 많이 하면 저절로 조복이 되어
서 역경이나 순경을 만
날 지라도 마음이 흔들
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
게 된다. 셋째 무생인(無
生忍)으로 참고 견디어
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
람의 인욕행 이다. 인생
이 무상하지 않으며 보
살이 허황함을 깨닫고 일체만법
(一切萬法)이 인연으로
모였다고 인연으로 흠어
지는 진리를 깨닫고 보
면 별로 성낼 것도 없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

이다. 육바라밀의 수행법에서 보시를
제일 먼저 둔 까닭도 사회의 모든 사
람이 상호 협조적인 보시자선을 행하
는 것이 대승 불교로서의 가장 필요
한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육바라밀에는 팔정도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외에 팔정도에 없는
보시와 인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만은 대사회 적인 것으로서
이타적인 대승불교의 특질을 나타내
고 있다. 보시는 재시(財施), 법시(法
施), 무외시(無畏施)의 세 종류로 나
뉘인다.

재시는 자비심으로서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재물을 주는 것이고, 법시
는 다른 사람에게 부처의 법을 말하
여 선근 善根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무외시는 스스로 계를 지켜 남을 질
해하지 않고 다른 이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 주는 것이다.

지계는 부처가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설정해 놓은 법규
를 지키고 범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
여 가지가지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
을 살피게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인욕은 온갖 모욕과 변뇌를 참고 어
려움을 극복하여 안주하는 것으로, 우
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
려운 일인 성내고 언짢은 마음을 참고

참을 것도 없다는 것이다. 넷째 적멸
인(寂滅忍)으로 이것은 부처의 지위
에 있어서의 인욕행이다. 생사고해에
뛰어나서 본래부터 적멸한 열반의 경
지에 서서 볼 때 할 물건도 없는 경계
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욕행을 닦음이
아니라 본래부터 한 생각도 일으키미
없는 곳에 참된 인욕이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정진은 순일하고 물들지 않는 마음
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아
가는 것이다.

정(精)은 순일무잡(純一無雜)을 의
미하고 진(進)은 용맹 무퇴를 말한다.
첫째는 몸과 입으로써 부지런히 착
한 일을 닦고 배우며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무르게 하
여 모든 생각이 착한 진리를 떠나지 않
게 정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사정진(事精進)
과 이정진(理精進)이 있는데 사정진
은 세간사와 출세간 사를 막론하고 그
것을 한번 이루려고 결심하였으면 그
목적에 성취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정진은 약한 생
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여
러 사람이 이롭고 나에게도 좋은 일
이 거듭 되게끔 마음을 아끼지 않고 기어
이 성취 하도록 노력 정진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달의 후원금

금 6,195,00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 하
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
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
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기존의 후원자분
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
하지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
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윤형식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운(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
과입니다.)

이
것
의
비
밀
은
<정리 심 대덕상>

Table with 7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Each entry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sign's characteristics and advice.